

# 신안군-나주시, 흥어 식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

## 역사·문화적 가치 세계에 홍보 흥어식문화 학술연구 공동추진

흥어(食) 문화를 개척해왔던 신안군과 나주시가 흥어 세계화에 나섰다.

13일 신안군,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나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윤병태 나주시장이 흥어 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시군은 협약을 통해 흥어 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 공유, 지정문화재 추진 등 상호협력에 착수한다.

양 시·군은 흥어가 가진 역사적 전통성과 독자적인 식문화 계승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주는 19회째, 신안은 9회째 각각 흥어 축제를 열며 남도를 넘어 전국으로 뻗는 흥어 음식 대중화에 이바지 해왔다.

협약을 계기로 흥어 식문화 역사적·학술적 가치 조사 및 자료 공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신청 등에 협력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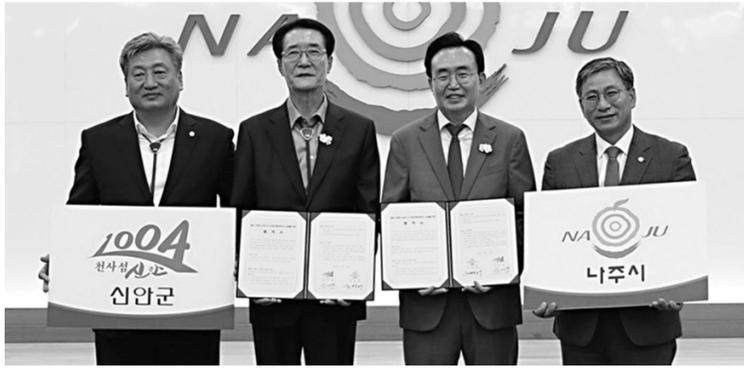
흥어를 매개로 두 지자체는 역사적 측면에서 남다른 인연이 있다. 신안 흑산도는 흥어 집산지, 나주 영산포는 삭힌(숙성) 흥어 본고장으로 유명하다.

조선 중종 25년 관찬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려말 남해안 지역 왜구의 노략질로 신안 흑산도 인근 영산도 어민들이 나주 영산포로 피난을 오게 됐고 그때부터 이 지역에서 삭힌 흥어를 먹게 됐다.

당시 영산도에서 영산포까지 오는 데는 뱃길로 보름 정도 걸렸다. 이때 배에 싣고 온 생선이 부패가 심해 버렸는데 항아리 속에서 삭은 흥어만큼은 먹어도 뒤탈이 없는 데다 먹을수록 알싸한 풍미가 있어 숙성 흥어가 영산포에 정착했다는 유래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병태 시장과 박우량 군수,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양 시·군의원, 흥어 관련 명인·단체 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영산도와 영산포는 명칭뿐 아니라 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갖고 있다"며 "전남 식문화의 본류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안군과 나주시가 흥어 세계화를 위한 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협약을 맺었다. 신안군 제공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나주와 신안이 손을 잡고 계승해온 흥어 식문화를 확산하고 세계 인류와 함께 나누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시·군과 의회, 생산과 발효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온 명인, 주민 모두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나주-조대봉 기자

## 해남 송호해수욕장 개장 내달 14일

해남군은 다음달 14일 송호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장기간은 8월20일까지 38일간으로, 입수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군은 개장 전까지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편의시설 확충, 물놀이 가능구역 지정, 안전시설 설치 등 피서객 맛을 위한 일체 준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7월 말에는 해변콘서트와 문화공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송호해변 여름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땅끝마을과 인접한 송호해수욕장은 해남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해변가의 수백년된 노송림과 호수와 같은 잔잔한 물결이 아름다운 곳이다. 모래가 굵고 수심이 얕아 가족들이 함께하기 좋으며 해송이 제방을 따라 이어져 있어 야영을 하기에 도 적합하다.

해남=전연수 기자

## 정례회 참관·의회 활동 체험 강진군청소년참여위원회

강진군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위원 13명이 지난 12일 강진군의회를 방문해 291회 제1차 정례회를 참관하고 의회 활동을 체험했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정례회를 참관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을 듣는 시간에 이어 의장, 의원 등 역할을 나눠 모의회의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했다.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의회 체험을 하는 청소년 한명 한명을 직접 안내하고 정례회 후에는 의원 7명 전원이 참여위원 청소년들과 인사를 나누며 의회에 관한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 받는 등 청소년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였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청소년참여위원 청소년들이 지난 12일 강진군의회를 찾아 의회 활동을 체험했다. 강진군 제공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해남군, 내일까지

해남군은 여성농어업인의 문화활동 문화향유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신청을 15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75세 이하의 여성농어업인이며 전년도 지급 대상자도 반드시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본인이 직접 발급처인 농협군지부(읍지역) 및 각 지역농협에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아 12월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의료·유형·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영화관, 안경점, 미용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과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문화누리 바우처 카드 지원대상자, 사업 시행 전년도 농업인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 완도군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어자 모집 합니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올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하반기 프로그램(귀어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귀어·귀촌 실행 및 정착 단계에 있는 도시민 및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융복합 기술 전수를 통해 창업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기존의 '농촌에서 살아보기'와 다르게 전문 기술 전수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완도군에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완도군 약산면의 어두리마을(약산면 약산로 1020)에서 주낙 꾸미기, 새우·광어·전복 양식 기술 전수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 자격으로는 만 18~55세 미만의 타지역 거주자 또는 전남으로 귀어·귀촌한 지 5년 이내인 자(귀어·귀촌 교육 10시간 이상 사전 수료)로 농수산물 판로 확대, 창업, 취업 등을 위해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신청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서류심사 및 전화 면접을 통해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완도=최경철 기자

참가자에게는 거주 공간, 귀어·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체류 기간별 귀어·귀촌 교육 시간은 최대 90시간까지 인정한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 당부했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 축산농가 여름철 재해 예방 추진 무안군, 열 차단재 도포 지원 등

무안군(군수 김산)은 기후 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 및 호우 일수 증가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폭염 시작일이 매년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안군에서는 5월 말 재해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지붕 및 축대 보수, 배수로 정비, 냉방설비 점검 등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축사 내 열기감소를 위한 열 차단재 도포, 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 등 재해 예방시스템 설치 등 7개 사업에 1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안에 신속하게 관내 축산농가(돼지·닭·오리·염소) 216호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배부하고, 환풍기, 팬, 냉난방기 등 예방 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 초청 강연 영암군, 22일 청소년수련관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오는 22일 영암군청소년수련관으로 '골목길 경제학자'로 이름 높은 모종린 교수를 초청해 '영암군민 아카데미'를 연다.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민 초청 특별 강연으로 기획된 이날 아카데미의 주제는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이다.

영암군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아카데미로 영암군의 골목상권을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명소로 바꿀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지역청년사업가, 지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영암 골목상권 특성을 공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아카데미가 꾸며진다.

먼저 다른 지역 골목상권 성공사례가 소개된다. 여기에 더해 영암군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 등도 제시된다.

이어 아카데미 주제와 같은 이름의 책을 낸 모 교수가 특강으로 청중과 만난다.

영암=이병영 기자

## 강진군,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 당부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 강진군,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 당부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군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의를 당부했다

강진=김윤복 기자